

한국문화교류 소식

37호 2020년 9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따로 또 같이'의 개념



김형준

(사)한국코치협회(경영 및 커뮤니케이션) 감사, 경영&뮤직 컨설턴트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해 가는듯하다가 다시금 확진자가 늘고 있다. 완전 극복하려면 갈 길이 멀다. 백신이 개발되려면 적어도 수년 이상 소요될 것이고 바이러스 또한 변형되고 있다. 인류가 정복한 전염병은 영국 제너(E. Jenner)의 종두법으로 퇴치시킨 천연두가 유일하다. 획기적

인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불편함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여기에 적응하고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며 이를 위해 '따로 또 같이' 개념을 적용해 보면 흥미롭다.

음악을 예로 들어보자. 음악은 크게 성악과 기악으로 나뉘는데 종교음악과 르네상스시대까지는 성악이 대세였으나 바하(J. S. Bach)를 기점으로 바로크시대 이후 악기의 발달로 균형을 이루다가 지금은 기악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기악곡 형식에서 독주와 합주의 묘미를 살리는 형식이 협주곡이다. 예컨대 피아노협주곡이면 피아노독주와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것이고 바이올린협주곡이면 바이올린독주와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것이다.

협주곡은 독주자가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다가

‘따로’의 기반 위에 ‘같이’를 키울 수 있다.

개인의 자질과 능력, 조직과 기업의 경쟁력,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을 구현한다면 더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미래와

연결되는 징검다리이자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 볼 창(Window)이다.

중간에 솔로로 연주하는 카덴짜 부분이 나온다. 독주자는 여기에서 혼신을 다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한다. 곡에 따라 여러 카덴짜가 있어 독주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카덴짜를 선택한다. 음악 감상할 때 카덴짜 부분에서 독주자의 기량에 흠뻑 빠져든다면 자신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오케스트라나 합창 연주에서 ‘따로 또 같이’ 개념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단원들은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지휘자는 기량 높은 단원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음악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수많은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로’가 뒷받침 되어야 ‘같이’의 가치(價値)가 높아진다.

경영에서도 ‘따로 또 같이’ 개념이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경영활동은 마케팅, 생산, 연구개발, 기획, 재무, 홍보 등 기능이 나뉘어져 있고 각 부서 담당자들은 능력을 키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체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예컨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려면 인적, 물적 자원이 뒷

받침되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회사의 존립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대기업도 같은 논리로 계열사들이 독자 생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그룹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글로벌기업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우리나라 글로벌기업이 포스트 차이나 일화로 인도에 진출코자 한다면 인도인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인도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기반을 닦아야 한다. 그래야 인도 사업장이 독자 생존능력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동양문화권으로서 관계성을 중시하는 문화에 속한다. 이를 고상황(High-context) 문화라고 하며 과업을 중시하는 서양문화가 속한 저상황(Low-context) 문화와 구별된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의 강도(強度)가 높은 편이다. 주위 사람과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큰 일 날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작년에 출간된 『약한 연결고리의 힘』이란 책이 있다(데이비드 버커스, 장진원 역, 한경 출판). 여기에 의하면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 모두 의의가 있다고 한다. 약한 연결고리는 불필요한 관계에 신경 쓰지 않고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장점이 있으며, 혁신속도가 빠른 산업에서는 이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두 가지 유대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반드시 강한 유대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이를 깨우쳐 주고 있다.

우리가 관계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극복한다면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조직행동론의 ‘빅파이브 이론’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다섯 가지 자질이 있는데, 정서적 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정서적 안정(Emotional Stability)이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제1의 자질이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은 평소 별다른 특징이 없더라도 유사 시 침착하게 대응할 능력을 발휘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선의 대응책은 자가 격리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개인의 저항력이다. 이는 확실한 ‘따로’의 개념이다.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므로 지금까지 ‘따로’의 개념에 익숙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른 개념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따로’의 기반 위에 ‘같이’를 키울 수 있다. 개인의 자질과 능력, 조직과 기업의 경쟁력,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을 구현한다면 더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미래와 연결되는 징검다리이자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 볼 창(Window)이다.

코로나 사태의 분명한 특성이 하나 있다. 이는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되면서 곧 바로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를 깨닫게 되면 사회 구성원 모두 스스로 수칙을 지킬 것이고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 이를 거울삼아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중을 헤아리는 여유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따로 또 같이’의 개념을 통해 타인을 챙기는 이타주의가 적용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 2011년 3월에 창립된 ICKC는 앞으로 한국문화 교류의 활성화로 세계문화발전과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 고자 하는 ICKC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피터 드러커(P. F. Drucker)의 혜안을 새삼 떠올려 본다.



세계태권도연맹

‘명예의 전당’ 헌액자 발표, 2020 소피아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는 취소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은 8월 10일 WT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WT 임시 집행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오는 10월 14일부터 18일 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기로 했던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를 취소했다.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청소년 선수들과 임원들의 안전을 위해 올해 주니어대회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주니어대회는, 다카르 하계 유스올림픽이 2026년으로 연기되어 세네갈 주니어대회는 2022년 이후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2년 주니어 대회 개최지를 불가리아 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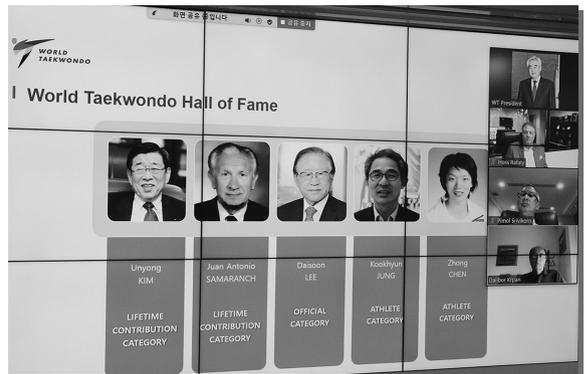
아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10월 주니어대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WT 정규 집행위원회와 총회는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10월 5일 집행위원회에 이어 6일 총회를 개최기로 하였으며 WT 총회가 화상으로 열리는 것은 WT 역사상 처음이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주니어대회에서 시상하기로 했던 ‘WT 명예의 전당’(World Taekwondo Hall of Fame) 시상식을 연기해, 2021년 가을 중국 우시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열기로 했다.

‘WT 명예의 전당’은 태권도 경기의 발전과 특히 올림픽 태권도의 발전에 기여가 특별한 선수와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서, 선정 부문은 선수 부문, 임원 부문, 평생공로 부문 등 세 부문이다.

아메드 홀리 WT 부총재(이집트), 하스 라파티



▲ ‘WT 명예의 전당’ 헌액자 5인

(Hoss Rafaty) WT 사무총장(미국), 마리아 보렐로 (Maria Borello) WT 집행위원(과테말라)과 장마리 아이예(Jean-Marie Ayer) WT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스위스)으로 구성된 명예의 전당 위원회에서 추천한 헌액 대상자를 WT 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 전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평생 공로 부문(life time contribution)에는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만드는데 기여가 가장 큰 고 김운용 전 총재와 고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이 선정되었다. 선수 부문에는 남자는 한국 태권도 역대 최고 선수로 꼽히는 정국현 WT 집행위원과 여자는 시드니와 아테네 올림픽 2연속 금메달리스트인 중국의 첸중이 초대 명예의 전당 헌액 선수로 선정되었다.

김운용 전 총재는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체육지도자로서, 세계연맹과 국기원을 설립하고 태권도 세계화를 견인했으며, 특히 1994년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전 IOC 위원장은 서울올림픽에서부터 태권도를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하도

록 하였으며, 1994년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임원 부문에 선정된 이대순 전 WT 부총재는 아시아태권도연맹 총재 및 태권도 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태권도 발전에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정국현 교수는 현재 WT 집행위원과 태권도 진흥재단 사무총장을 겸하며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태권도 올림픽에서 여자 첫 2연패를 기록 보유자인 첸중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포함하여 화려한 국제대회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정원 WT 총재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다섯 분은 모두 올림픽 태권도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이다”며 “이번에 그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할 예정인 그랑프리 파이널은 10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집행위원들은 WT 본부의 경기도 고양 이전 논의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 10월 화상으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



▲ 화상집행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 조정원 세계태권도 연맹 겸 ICCK 총재

◀ 세계태권도연맹 화상집행위원회 모습

라파초 향기 속에 휘날리는 태극기

- 파라과이한글학교를 만나요 -



이경연
파라과이한글학교장

남아메리카의 지도를 보면 가운데 심장 모양의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곳이 파라과이이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남미가 조금은 가까워졌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로 생각한다. 특히 많이 알려진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아닌 파라과이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파라과이는 한국인의 정서인 정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분홍, 보라, 노랑의 꽃이 피는 라파초 나무들이 사람들을 부드럽게 품어준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파라과이한글학교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학교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한국말로 종알거리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된다.

파라과이한글학교는 파라과이 이민의 역사와 함께 출발한다. 1965년 이민을 시작하여 정착하기에 바빴던 교민들은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였다. 어느 날,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현지 스페인어는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어는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며 자녀들과의 소통마저 어려워지자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교회나 선교사들에 의해 한글 교육을 시작하다가 1976년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한글학교가 시작되었으며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하였다. 교실이 없어서 현지학교를 빌려 사용하다가 교민들의 적극적인 모금과 교육부의 지원으로 완공된 3층 건물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 교민들이 현지에서 한국인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 학교는 늘 손가락 안에 꼽히고 있다.

파라과이한글학교는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지닌 세계인을 기르는 파라과이한글학교'를 목표로 하며 '토요일마다 만나는 즐거운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파라과이한글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학교의 자랑거리를 살펴보자.

하나, 최고의 선생님들!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170여 명의 학생들과 13명의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

다. 교사들은 주 중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고 토요일에 학생들을 만나는 부푼 기대와 기쁨으로 교문을 들어선다. 학생들은 파라과이 출생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인끼리 통하는 정서 때문에 한글학교에 오면 더 즐거워한다. 선생님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기에 더 열정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그들과 소통하며 생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수업을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매주 만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한글학교를 다녔으며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각종 연수, 한국어교사자격증 등을 취득한 우수한 교민 자녀들이 함께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둘, 함께하는 최고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지학교 다니느라 지친 몸이어서 교문을 들어설 때는 졸려서 표정 없는 모습이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망울도 맑아진다. 예의바르고 순수한 심성을 지니고 있어서 선생님, 선후배, 친구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와 상처 받은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치유한다. 이곳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학부

모가 직접 등하교를 시키기 때문에 가정의 협조가 없으면 학교에 오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곳이 1시간 거리인 가정에서도 토요일만큼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체득하도록 자녀들을 보내고 있다. 학교에서 추석행사로 송편 빚기를 할 때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두 모여 마을 잔치처럼 이야기를 나누며 송편을 빚고 먹는 시간을 갖는다. 학교와 가정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 아름다운 교정

교정에 들어서면 다근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는 교실, 가운데 있는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만난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움을 가르칠 때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까지 포함시킨다. 우리 학교는 아담하지만 배움의 소중함과 열정이 학교의 역사와 함께 고스란히 녹아있기에 교실과 운동장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희망이라는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낸다.

넷,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기는 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역사가 새롭게 기록될 것이다. 우리 학교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의 역할을 설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라인 쌍방향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4월부터 계속 수업을 하고 있다. 시작할 때의 모든 어려움은 현재의 우수한 교육방법이 되었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힘이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열심히 봉사하는 한글학교를 응원하며, 우리 파라과이한글학교가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해본다. 오늘도 고요 속에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교정이 하루빨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차기를 기대한다.



(학교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lcpsy>)



삼일절 100주년 기념 '고등부 뮤지컬'



추석행사: 송편을 빚고 있는 학부모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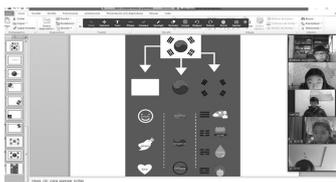
딸기밭 현장체험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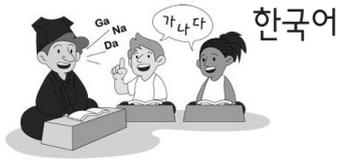
태극기를 그리는 모습



원격수업 하는 유치부



원격수업



호치민시 토요한글학교, 코로나 속에서도 11주간 등교수업 마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한글학교가 수업을 중단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호치민시토요한글학교(교장 신선호)가 지난 11주간의 등교 수업을 마치고 7월 25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 학교는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초 예정했던 3월에서 5월로 연기해 개강했으나, 기존 4교시 수업을 5교시로 증편하며 계획했던 1학기 교육과정 운영 목표를 달성했다.

한 학기 동안 유·초·중 12개 학급 142명을 대상으로 국어, 논술, 역사 등의 수업을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의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맞춤형 보조 교재(국어 6종, 역사 3종)를 활용해 수업의 내실을 기했다. 또한 스쿨버스 운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도왔다.

신선호 호치민시토요한글학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사·학생 모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말에도 열정을 갖고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등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현수 기자, 2020/07/31



▲ 호치민시 토요한글학교 수업 모습 (사진 출처: 재외동포신문)



세계태권도연맹 폭발 참사 레바논에 태권도용품 · 현금 지원

세계태권도연맹(WT)은 폭발 참사로 큰 피해를 본 레바논에 태권도용품과 현금 3만달러(약 3천 6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연맹은 지난 4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고통을 겪는 레바논의 태권도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원 연맹 총재의 지시로 태권도박애재단(THF), 아시아태권도연맹 관계자들과 함께 WT 사무국에서 하비브 자리페 레바논태권도협회장과 화상으로 한 시간여 동안 회의를 가졌다. 하비브 회장은 베이루트 내 10여개 태권도장이 폭발 사고로 큰 피해를 봐 수련생들이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렸다.

이후 조 총재는 레바논협회에 매트와 도복을 비롯한 태권도용품을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발전재단(ADF)과 공동으로 3만달러의 현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연맹 주최 대회 및 온라인 코스 교육에 참여하는 레바논 태권도 선수, 코치, 심판들의 등록비도 면제된다.

[기사 전문 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0/08/20



▲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박애재단(THF)에 감사 인사하는 레바논 태권도 수련생들. (세계태권도연맹 제공)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제3회 수당고택 음악회' 성료

지난 8월 21일(금), 충남 예산에서 '제3회 수당고택 음악회'가 열렸다. 수당기념관이 주최하고 (사)마리소리음악연구원이 주관한 본 음악제는 대한제국기 독립운동에 힘쓴 수당 이남규(修堂 李南珪)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접수 인원 100명으로 참가를 제한했지만, 경기명창 이선영, 국악인 겸 영화배우 오정해, 가수 조명섭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펼치며 열기를 더했다. 이날 초연된 '숙인 완산이씨 연가'는 ICKC 회원이자 마리소리음악연구원 이사장인 이병욱 교수가 작곡한 곡으로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ICKC 회원인 황경애 단장(중요무형문화재 97호 살풀이춤 전수자)이 이끄는 어울사랑예술단의 전통춤 무대,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의 연주 등이 이어졌고, 전 출연진과 관객들이 어우러진 '예산아리랑(이문회 수당기념관장 시·이병욱 곡)'을 끝으로 본 음악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수당고택 음악회 '예산아리랑' 무대 (사진 출처: 내포뉴스 조진호 기자, 2020/08/24)

■ 이종만 회원, 『숲은 미래의 희망』 출간

ICKC 회원이자 '나무 심는 나무꾼'으로 자처하는 이종만 솔렌스토브(주) 대표이사의 『숲은 미래의 희망』이 출간되었다.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수필가이면서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사인 이종만 회원은 일평생 조경과 산림 가꾸기에 힘써 왔고, 숲과 나무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나무 이야기'를 매년 펴내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숲은 미래의 희망』은 '나무 이야기' 제6권으로, '나무 예산론'을 통해 숲을 가꾸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공익을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추천사를 쓴 이시형 의학박사는 나무꾼 이종만이 진실하고 건강한 애국자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종만 회원은 책이 출간될 때마다 ICKC에 소정의 도서를 기증하고 있다.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한다.



2020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0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진태, 김창욱, 노승락, 류성식, 문영호, 박경명, 박관용,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신재, 박원출, 박익근, 박인숙, 배대환, 성효동, 유영찬, 유자효, 윤문원, 윤윤식,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웅선, 이창걸, 이항구, 이현목, 이호정,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추호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P&H
(가나다순, 2020년 1월 1일 ~ 2020년 8월 31일까지)

총액 : 22,68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산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 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중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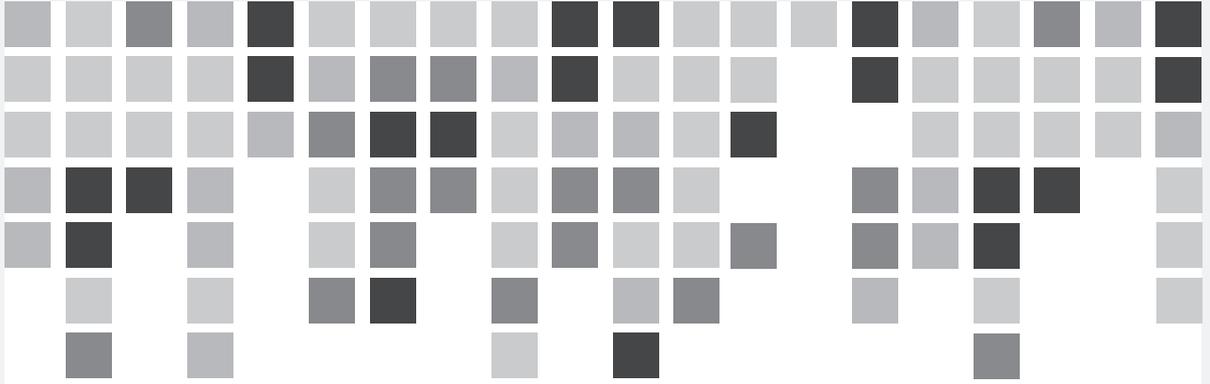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 30%) 비율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로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발전재단

Asia Development Foundat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교류와 협력 · 나눔과 상생

전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은 다시 아시아로! 라는 기치 아래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F

Asia Development
Foundation